

“진도를 살려 주세요” 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경제 침체...郡, 사업비 1586억 국무조정실 등에 건의

청정 진도 알리기 등

14개 사업 추진키로

2개 추모사업도 포함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진도 서망항 수협 위판장은 상당 기간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보배섬’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뜸 끊겼고 청정 해역에서 수확한 돔·돌미역 등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팽배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이들을 상대로 민박집을 운영해오던 지역민들의 수입도 급감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피폐해진 진도 경제를 살릴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진도군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절실하다며 16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 등 10여개 부처에 보냈다.

사고 당시 조업을 포기하고 수개월간 구조에 나섰던 어민, 관광객 격감에 따른 음식·숙박업계 손실, 수산물 판매량 급감 등 산정조차 힘든 피해를 입은 진도 경제 회복 뿐 아니라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사업도 포함됐다.

진도군이 추산한 예상 사업비는 1586억 원으로, 크게 경제활성화를 위한 14개 사업(866억)과 2개 추모사업(720억)으로 나뉜다.

14개 사업의 경우 훼손된 지역 이미지를 회복하고 청정 해역 진도 수산물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농산물을 공급·판매하는 상설시장을 재건축(70억)하고 청정 수산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현대화된 수산시장(60억)과

가공 능력을 갖춘 농·축 특산물 가공시설(60억)을 갖춘 뒤 질 좋은 진도지역 특산물을 전국 곳곳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지거점 유통센터(60억)를 통해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50억)에 공급, 지역민 소득 향상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무너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명랑’(100억원), 진도대(100억)를 활용한 관광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동계훈련장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100억) 사업, 진도 지역내 산재한 국가 명승지를 활성화해(100억)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산도

요청했다. 훼손된 진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20억)과 세월호 침몰 참사로 생계 타격을 입은 조도 주민 생활지원 비용(90억)도 지원을 요청했다.

진도지역은 세월호 참사 이후 32만여명(2013년)에 이르던 관광객이 15만여명(2014년)으로 50% 가까이 급감했고 진도 수협 서망항 위판장 위판액도 280억 원(2013년)에서 160억원으로 42% 줄었다.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추모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진도군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22억)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시설(500억)을 건립,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진도 경제는 여전히 암울한 형편”이라며 “진도 지역민들을 살리고 세월호 추모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U대회 성공 기원합니다”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를 30일 앞둔 3일 오후 광주시청 직원들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성공적인 U대회를 염원하며 영어 알파벳 U자를 만들어 보이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43, 달뜨기 21:03, 달지기 06:42

메르스 주의보! 손을 깨끗이 씻어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4/31	보성	구름많음	12/29
목포	구름많음	15/27	순천	구름많음	16/30
여수	구름많음	17/26	영광	구름많음	13/30
나주	구름많음	12/32	진도	구름많음	13/27
완도	구름많음	15/27	진주	구름많음	13/31
구례	구름많음	12/31	군산	구름많음	13/29
강진	구름많음	13/29	남원	구름많음	11/30
해남	구름많음	13/30	홍산도	구름많음	16/24
장성	구름많음	11/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안바다	안바다	북서~북	0.5~1.0	동~남동	0.5
안바다	안바다	북서~북	0.5~1.5	동~남동	0.5~1.0
남해	안바다(동)	북~북동	0.5~1.5	동~남동	0.5~1.0
서부	안바다(서)	북~북동	1.0~2.0	동~남동	1.0~2.0
안바다(서)	안바다(서)	북~북동	1.0~2.0	동~남동	1.0~1.5

◇생활지수

수면	30
운동	50
빨래	9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18	08:30
	15:18	20:32
여수	밀물	썰물
	10:00	04:01
	22:36	15:55

◇주간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	☀	☀	☀	☀	☀	☀
18/27	17/30	18/31	18/30	18/30	18/31	18/31

대표회장 모집 중국 조직에 넘긴 일당 적발

전남경찰 4명 구속 5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보이오피싱을 위한 대표회장 모집 등에 가담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표회장을 전담한 이모(여·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터 인터넷 등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씨 등에게 수수료(5%)를 주겠다며 대표회장 개설을 요구한 뒤 보이오피싱에 활용한 혐의다. 이들은 보이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2억여원을 20여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빛원전 2호기 가동 중단...증기발생기 수위 낮아져

영광 한빛원전 2호기가 3일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됐다. 정기점검 후 6개월여 만에 발전소 가동이 중단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날 오전 11시26분께 한빛원전 2호기의 증기발생기에서 저수위 신호가 감지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됐다.

갑작스런 원자로 정지에 따른 방사능 외부 유출은 없었고 발전소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원전 측은 밝혔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한빛원전 2호기 발전소 외부에 설치된 스위치야드(변전소) 차단기가 개방되면서 원자로가 불시에 정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단기 개방으로 전원 공급이 끊겨 발전소에 냉각재(물)를 공급하는 주급수 펌프 작동이 멈추고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세균막의 수위가 급속히 낮아져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스위치야드 차단기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의 송전선로에 보내는 시스템에 설치돼 있으며, 원전과 외부의 신호 가운데 한 곳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내려가게(개방) 설계돼 있다. 저수위 상황이 발생해 원자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고, 반대로 원자로 가동 정지때문에 차단기가 개방될 수도 있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절릴 전망이다.

원전 측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자로 보호계통 기능시험을 시작해 원자로 가동이 중단되기 2분전까지 시험을 진행해왔었다. 원전 측은 이날 진행된 기능시험과 원자로 불시정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빛원전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당시 계획예방정비에서는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와 관계시설의 성능,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점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오늘 주민 200명 참석 개관식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커뮤니티센터인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이 개관한다.

3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연면적 1843㎡)에서 송광은 청장 등 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개관식을 연다. 커뮤니티센터는 소규모 동아리방으로 활용될 다용도실과 각종 행사 발표회장 및 공연장, 교육 홍보관, 작은 도서관, 열린카페 등으로 채워져 주민 참여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종행기자zigolee@kwangju.co.kr

일본 간 광주 시민단체 19명 입국 심사만 4시간

나가사키 강제징용 시설 방문

광주 한 시민단체가 일본 나가사키 강제 징용 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 입국을 추진했다가 4시간에 걸쳐 입국 심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서야 입국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7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 지역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 원폭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등을 둘러볼 계획이었다.

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회원 19명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일본 나가사키 국제공항에 도착,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모임 대표 등을 상대로 방문 목적을 자세히 묻는 바람에 4시간 여 만에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다.

나가사키 지역에는 일본정부가 산업 유산이라는 명목으로 재해를 추진 중인 대상 23곳 중 8곳이 집중됐다.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 확인된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는 나가사키 조선소 149명, 하시마 탄광 112명, 다카시마 탄광 95명에 달한다.

시민모임 측은 이날 오후 1시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을 협의하는 집회를 열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2014 타경 2448, 근린시설, 대박물건, 강력추천!

구분	지번	면적	가격	특징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2-5의 1필지	2448	12억 5000만원	대출 확정	이자 연 2.1% 월 218만원
요양시설/ 연수원/ 펜션단지/ 전원 주택단지/ 등등 개발 가능				
대지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원 이상 상승 효과				
관광진흥자금 5억~10억 보조 가능				
추가 비용없이 명도 완료 가능				
단독/공동투자 가능(법인으로 공동 소유)				
수익률 1억투자 → 5000만원 가능(18개월 이내)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2-5의 1필지
- 낙찰 후 12억 5000만원 대출 확정 (이자 연 2.1% 월 218만원)
- 요양시설/ 연수원/ 펜션단지/ 전원 주택단지/ 등등 개발 가능
- 대지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원 이상 상승 효과
- 관광진흥자금 5억~10억 보조 가능
- 추가 비용없이 명도 완료 가능
- 단독/공동투자 가능(법인으로 공동 소유)
- 수익률 1억투자 → 5000만원 가능(18개월 이내)

상담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

